

바뀐 쌀 직불금제 임차농만 '속앓이'

지난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이하 쌀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 이후 쌀 직불금 신청요건이 강화되면서 애꿎은 임차농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땅주인들이 농지를 회수하거나 임대계약서 작성을 끌리기 때문이다.

30일 영암군에 따르면 쌀 직불금 등록신청을 지난 10일 접수마감한 결과 신청농가가 지난해 9천686명, 1만 6천558ha 면적에서 올해는 9천132명, 1만6천540ha으로 각각 554명, 6%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군 직불금 신청은 11개 읍·면 전지역에 걸쳐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영암읍(1천101→893건)과 학산면(750→658건)에서 평균보다 높게 감소했다. 면적은 군 서면(2천118→2천23ha)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수창구가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읍·면으로 바뀐 탓도 있지만, 직불금보다도 양도세 감면에 더 관심이 많은 자주들이 임대를 포기한 채 농지를 회수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신청강화에 지주들 농지회수 늘고 임대계약 꺼려

영암 등록신청 전년比 면적 6%·농가 554호 감소

로 분석되고 있다. 또 농사를 짓더라도 3천700만원 이상 농업·종합 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농업을 결집해온 상당수 골여 생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특히 외지 경작자의 경우 심사가 위나 까다로워지면서 탈락됐을 경우 조사를 받거나 사법처리 등을 우려한 일부 신청자들이 아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조건은 현재 신청자격 읍·면 거주자 아니거나, 동지역 거주자의 경우 인근 농경지 농민 3인 이상의 자경 보증과 2005~2008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지급받은 대상자에 한해 직불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외지인이 거주지에 농지가 없을 경우 해당 지

역에서 1만m² 이상 농사를 짓어야 하는 등 부재지주의 신청자격도 대폭 강화시켰다.

5천280m²(1천600평) 규모의 논을 임차했다는 김모(62·영암읍)씨는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땅주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보상금 받을 때 내가 피해 보면 당신이 책임질 거'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인근 임차농의 90%는 나와 사정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시설농가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모(56·시종면)씨는 "구두로 계약하고 땅을 빌려 농사를 짓다 보니 자연재해라도 발생하면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다"며 "정부가 임차농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이모(58·시종면)씨는 "비는 '한편 쌀 직불금 신청이 허위사실로 드러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는 별도로 직불금을 받았을 경우 2배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료·농약 등 농자재를 살 때 땅주인 이름으로도 영수증을 끊어줘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생겼다"며 "이 일대 농가 대부분이 땅주인으로부터 농지를 회수 당하거나 땅주인 이름으로 농사를 짓는 관리인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쌀 직불금은 지난해 영암은 116억4천여만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는 116억8천여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업진흥 지역 안의 농지 1㏊당 74만6천원과 비 진흥지역 1㏊당 59만7천원의 고정 직불금 지원기준에 의해 지난해 타 시·군에 신청했던 진흥지역(간척지) 신청자들이 올해는 영암으로 신청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쌀 직불금 신청이 허위사실로 드러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는 별도로 직불금을 받았을 경우 2배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

/영암=이상희기자 lsh@



영산강에 봉어 치어 1만마리 방류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지난 26일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나들목 선형개량공사 현장 주변 영산강 개천에서 봉어 치어 1만마리를 방류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광산구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조성' 순조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리 밀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수확기인 매년 5월 우리 밀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5%로 29개 OECD 국가 중 26위를 기록할 정도로 식량안보 확보가 절실했던 상황"이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식량위기에 광산구가 먼저 대비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 밀 육성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2010년까지 10억 투입 5기 건설…증산 기대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대의 우리 밀 생산지인 광산구가 품질고급화와 증산을 위해 지원하는 건조저장시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우리밀 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평식)은 2천500t의 우리 밀을 건조·저장할 수 있는 사일로 5기를 2010년까지 건설하기로 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총 10억원의 사업비

중 정부지원 금액은 구비를 포함해 7억원에 달한다.

구는 건조 저장시설이 우리 밀 대표브랜드 육성 및 증산계획에 혜자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올해 관내 300여 농가에서 1천600t을 수확해 14억원의 소득을 올린 성과를 밝관삼아 내년 목표를 2천t으로 늘려잡고 오는 10월 파종분에 대해 9천300여만원의 농가 비료대를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환경정화 운동'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회순군지부 회원들과 회순·능주고 학생들이 최근 화순읍내 도심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매달 한차례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돌보는 등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운동에 앞장 서고 있다.

혈통개량으로 '명품 한우' 생산

장성군, 맞춤형 가축 사양기술 시스템 구축

장성군이 축산분야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명품 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다.

30일 군에 따르면 삼서면 이태영, 서삼면 강성태 농가에서 장성 최초로

한우 거세우를 최근 출하해 최고등급(1++) 판정을 받아 두당 각각 1천 70만원의 경매가를 기록해 축산농가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체계적인 맞춤형 가축 사양 관리기술과 우량정책을 지원해 혈통이 개량된데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축산농가의 정성이 어우러진 결과로 보인다.

장성군은 한우 혈통개량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관내 한우 가임암소 전 두수를 대상으로 연간 1억원의 군비를 지원해 최고의 우량정책을 장성축협으로부터 구입, 공급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나주시, 희망근로 프로젝트 '우수'

특별교부세 2억 수상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 전국 평가결과 나주시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수상하게 됐다.

나주시는 광역시와 도·시·군·자치구 별로 지난 7월 사전심사와 8월 현장평가를 거쳐 우수 자치단체로 최종 선정과 정부종합청사에서 표창을 받았다.

나주시는 2009년 7월 2300만원의 예산으로 527명에게 희망근로 일자리를 제공한 데 이어 2개의 랜드마크 사업을 비롯 전국 공통사업 8개, 시·군 특화사업 5개, 일반 사업 31개 등 총 46개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았다.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의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맞춰 서민층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생산적 사업에 시의 행정역량을 집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35억9천400만원의 예산으로 527명에게 희망근로 일자리를 제공한 데 이어 2개의 랜드마크 사업을 비롯 전국 공통사업 8개, 시·군 특화사업 5개, 일반 사업 31개 등 총 46개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자연탐방·현장교육 강화

담양 환경대학 개강

담양군 환경 지킴이의 산실인 '제9기 환경대학'이 지난 28일 전남도립대학에서 입교식을 갖고 오는 9월17일까지 교육과정에 들어갔다.

환경보전에 관심있는 주민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군민 65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환경대학은 지난 5월 농축성장 및 석면관리 종합대학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관내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담양하천습지, 폐비닐처리공장 등 체험 위주의 자연탐방과 현장체험교육을 강화하게 된다. 다양한 계층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교수와 환경운동가 등 9명으로 강사진을 구성했다. /دم양=노정훈기자 cjob17@

대인동삼일부동산

☎ (02) 231-1140, 5210 월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간편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절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절포가 4~5

칸 정도에 절포가 여려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T: 383-5221 H: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밸류업그룹, 투자형

- 토600평 간접 350평(여기85억)
보증금37억(월3,300만원) 월자2억
- 토1200평 간접 2,500평(여기10억)
보증금7억(월8,000만원) 월자5억
- 토550평 간접 750평(여기9억)
보증금10억(월2,000만원) 월자2억

토지

- (상무구 상무지역)
(화서사, 병원, 학원, 기숙사 등)
- 84.5㎡(25평)-폐지 200만원
(풀립미스 국정기념관 폐기학습 중간사거리카드)
- 61.9㎡(18평)-폐지 680만원
- 165.0㎡(50평)-폐지 1,200만원
(상무우리동원주점)

기타용도

- (농장)73,000㎡(2만2천평)
폐지 10만원(동부환경기부로 총은곡)
- (녹지)상가등 약 3000평
폐지 300만원-고려고주원(마트, 음식점 등 쇼핑몰)
- 상무구 성원중인 흐령 평지 다수있음
한글 20억 40억 투자 부 이상 수익 가능
- ▶ 상가 대매 (상무구, 상무역세권)
- 상가 150㎡(5평)-폐지 평당 40~50만원
기행등기 있음, 학원, 동화상, 사무실 등 적합
- 세정아울렛 주변 역세권 많아 있음
대형 의류점 가능 상가·천화 상당 가능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으드리며,
점퍼하실 물건 팔아 드겠습니다.
이후 뉴마전화주십시오.

부동산 투자 정보

아파트·단독·다세대주택·상가·대지

* 부동산 경매 대행 및 투자상담 *

경매 권리 분석 및 투자 분석 입찰 대행

* 부동산 급매 매매 및 투자 상담 *

현재 매매가 15~50% 할인 매매 매매

* 부동산 담보 대출 및 투자 상담 *

부동산 담보 천만원 투자 시 월 30만원

금호부동산컨설팅
TEL 224-5959, FAX 223-5151

010-2831-1733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금 매물 중개 전문)

공시지가+전율과 표 15억/폐 매가 11억

▶ 대지300p 건평450p 보증금 1억5천20m²로 전

▶ 35m²로 점 1층 삼 칸 건물 약 100p 명 지분 93p

한의원 내과 적합